

<서평>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Philip A. Noss, ed.,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2007)

이두희*

1. 들어가는 말

본서는 네 가지 관점에서 성서 번역의 역사를 다루는 번역 학자들과 번역 이론가들의 글을 구성하였다. 네 가지 관점은 1) 번역 자체, 2) 성서 번역의 인식론과 번역 이론, 3) 성서 번역자들에 의해 사용된 번역 방법론 그리고 4) 오늘날 성서 번역 분야의 현실에 대한 성찰이다. 이 책은 위의 네 가지 관점에 따라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성서학, 신학, 언어학, 문화연구, 번역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학문상호간 접근을 채택하는 여러 학자들의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립 노스(Philip A. Noss)는 이 책의 편집자로서 각부(sections)의 특징과 내용을 간략히 개관하고 서론적 안내를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책 전체에 대하여 조망하게 한다. 필자는 먼저 이 책이 전하는 내용을 목차에 따라 간략히 검토한 후에 비평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2. <성서 번역의 역사: 서론과 조망>

서론과 조망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이, 편집자 노스의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노스는 이 책에 실린 다양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번역에 관계된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성서 번역이 단순히 언어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노스는 성서 번역의 동기가 선교와 맞물린 종교적인 것이지만, 성서 번역 활동과 결과물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일어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났음을 지적한다. 그는 성서 번역과 보급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19세기의 선교 열풍 외에도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종교적, 과학기술적 요인이 있었으며, 20세기 성서 번역에 발전을 가져다 준 요인으로서는 언어학,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노스는 실제 번역에 있어서, 단순한 언어 지식이 번역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캐리는 일찍이 벵갈어 성서 번역에 착수한 바 있는데, 그는 산스크리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산스크리트어 연구에 몰두하여 인도의 중요 철학, 서사시들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마침내 성서를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불교, 힌두교 등 아시아의 사상과 개념을 성서 번역에 통합해 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노스는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외국의 종교로 간주되는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서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이 책에 실린 여러 논문들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주제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중요 주제 중 하나는 번역 이론이다. 노스는 성서 번역의 원칙과 방법에 있어 그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늘 이원론적 구분이 지배적이었음을 간략히 보여준다. 제롬은 ‘의미 대 의미(sense-for-sense)’ 방법과 ‘단어 대 단어(word-for-word)’ 방법으로, 쉴라이에르마허는 ‘낯설게 하기(foreignization)’와 ‘토착화하기(domestication)’ 방법으로, 나이다는 ‘형식(form)’ 대 ‘내용(content)’으로, 라르손은 ‘의미에 기초한(meaning-based)’ 방법과 ‘형식에 기초한(form-based)’ 방법으로 번역의 원칙과 방법을 이분화 하고 있다. 그런데 성서 번역에서 특이한 점은 성서가 기독교인들의 경전으로서 거룩한 책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한계시록 22:18-19의 경고는 많은 번역자들이 문자적 번역을 채택하도록 만들었으며, 케난(Lin Kenan)에 의하면 중국에서 불교 문헌의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슬람에서는 아예 번역 자체가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성서가 이처럼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는 것에 대하여 열려 있었다는 것은 인상적이라 하겠다. 이 주제는 본론의 2부와 3부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노스는 성서 번역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차지한 역할에 대한 회고를 덧붙인다. 불가타, 킹 제임스, 루터 번역 등은 라틴어, 영어, 독일어와 그 언어로 기록된 문화들의 발전과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히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20세기에 카메룬과 중앙아프리카의 주요 언어가 된 그바야(Gbaya)어 등도 성서 번역자들과 성서 번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파푸아뉴기니의 북 바벨(Buk Baibel),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의 굴라(Gullah) 신약 성경의

예가 보여주듯이, 소멸 위기에 처하였던 언어들이 살아남게 된 것도 성서 번역자들과 성서의 사용에 기인한 경우들이 있다. 4부에서 다루어질 주제와 관련하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성서 번역,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단순한 번역뿐만 아니라, 기록된 문서에서 다른 미디어로, 혹은 한 미디어에서 다른 종류의 미디어로 옮겨지는 모든 것이 번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는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노스는 성서 번역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번역의 동기에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간다. 그 예로, 오늘날 영어 번역본들에서 문제가 되는 이념적 요소들로 1)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the Jews)”의 번역, 2) 여성 신학에서 제기한 “남녀를 아우르는 포괄적 언어(inclusive languages)”의 사용에 대한 요청, 3) 아프리카와 흑인에 대한 태도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번역과 관련한 윤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2003년 TTW(Triennial Translation Workshop)에서부터였다.

노스는 서론 부분에서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을 관통하는 논의의 몇몇 주제들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별한 후에,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인 조망 부분에서 각 장의 특징들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이제부터 노스의 조망을 참조하면서 이 책에 실린 본 논문들의 논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3. 〈제1부, 역사: 칠십인역에서 토착어 역본들까지(History: The Septuagint to the Vernaculars)〉

이 책은 필립 노스의 서론을 제외하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는 다시 각 소주제에 대한 서론과 그 주제를 상술하는 두서너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는 그 단원 주제에 정통한 학자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각각의 글들은 성서 번역의 성격과 범위가 가진 특징으로 인해 간혹 중복되기도 한다.

역사를 다루는 제1부는 시간 순으로 주요 번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상 범위가 광범하여 나머지 세 부분(sections)에 비해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진바키안(Manuel Jinbachian)이 서론을 쓰고, 이어지는 5개의 장에서는 구체적인 번역의 사례들이 소상히 소개되는데, 진바키안은 번역에 사용된 대본의 종류에 따라 성서 번역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에서 번역된 것들(칠십인역, 타르굼들,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어 불가타, 콥트어 신약 등)을 1차 번역들(Primary Translations)로, 이 1차 번역본들을 대본으로 한 번역들(아르메니아어역, 콥트어역, 고라틴어역, 시리아-헉사플라, 고트어역, 에

티오피아어역(게에즈), 페르시아어역, 아라비아어역)을 2차 번역들(Secondary Translations)로, 이 2차 번역본들을 대본으로 한 번역들(그루지아어역, 고트어역)을 3차 번역본들(Tertiary Translations)로 구분한다. 시기적으로는 4개의 시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시기는 기원전 532년(포로 귀환)부터 기원후 700년까지, 두 번째 시기는 아랍 이슬람 제국시대에 속하는 700-1500년까지, 세 번째 시기는 16-18세기를 포괄하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시기, 네 번째 시기는 19세기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는 현대 시기가 그에 해당한다.

진바키안은 각 시기별로 이루어진 번역에 대한 개관에 앞서, 번역의 방법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제공한다. 번역자이기보다(non ut interpres) 수사가로서(sed ut orator)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말한 키케로, 충실한 번역가들(fidus interpres)의 충실성(faithfulness)은 대부분의 번역가들에게 경시를 당했다고 말한 호라티우스, “충실한 번역가들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no subierim fidi interpretis culpam)”라는 문구의 출처로 유명한 6세기의 저자 보에티우스 등 “자유로운” 번역을 옹호했던 이들과, 다른 한편으로 일반 문학의 번역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번역을 추구했으나 “성서의 단어 순서에서조차 신비”를 본 까닭에 성서 번역에서만은 자유로운 번역을 포기했던 제롬 등 두 개의 상반된 번역 입장이 간략히 소개된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주장했듯이, 성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언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산문, 법률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된 문서의 집합체이므로, 때로는 문자적 번역이, 때로는 자유로운 번역이 필수적인 책이라 할 수 있다. 성서 번역의 실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문자적 번역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의미 중심 번역으로 변화를 겪게 된 것을 성서 번역사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각론(The First Versions: The Septuagint, the Targums, and the Latin)에서 벌크(David G. Burke)는 1차 번역에 해당하는 칠십인역, 아람어 타르굼들, 불가타 등 “초기 교회 시대”의 번역들을 다룬다. 타르굼과 페쉬타, 칠십인역, 아르메니아 역 등의 번역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된 번역 기술들과 번역의 방향, 즉 문자적 번역과 의미 중심 번역의 두 경향성이 각각의 번역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한 예로, 타르굼 웅켈로스는 보다 문자적인 번역을, 다른 한편 타르굼 네오피티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고 많은 해설을 첨가한 설명적이고 풀어쓰기식의 번역임이 소개된다. 칠십인역의 경우 번역자는 대체로 문자적인 번역을 따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의 소통에 비중을 둔 번역 기술들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고대의 번역자들은 ‘함축적’인 것을 ‘명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반복되는 것은 ‘함축적’으로 남겨두는 등과 같은 번역 기술들(techniques)을

사용했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단어의 의미론적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여 그 단어에 가장 알맞은 요소를 선택하였다. 딱 맞는 번역어가 없을 때는 보다 ‘포괄적인’ 어휘소를 사용하거나, 수용자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용자의 문화에서 ‘구체적’ 단어를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들의 독특한 문화/종교적 상황과 연계된 특별한 단어의 사용을 피하기도 했으며,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히브리 종교의 문화적 특수성과 관습들을 헬레니즘 세계에 적응시키기를 시도했다. 그들은 병렬문을 종속문으로 바꿈으로써, 혹은 그 반대로 함으로써, 문장론적, 논리적 관계를 명료화하려고 시도했다. 번역자들은 “기능적 동등성”을 추구했으나, 썸어의 독특성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번역자들이 히브리 혹은 헬라적 요소를 번역에 남겨 놓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장(Secondary Versions: Arabic to Old Slavonic)에서 로즈(Erroll Rhodes)는 2차 번역에 해당하는 아랍어 역과 슬라브어 역을 소개한다. 이 지역들에 기독교가 전파된 역사에 대해 논하면서, 최초의 번역이 형성된 시기, 여러 다양한 번역본들과 개정판들이 생겨난 경위와 그 판본들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지만 광범위하게 개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본에 대해서 사본학상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고찰한다. 로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본 연구에 직접적인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그 번역본의 존재 자체가 성서 본문의 역사적 전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한다.

세 번째 장(From Martin Luther to the Revised English Version)에서 폴 엘링워스(Paul Ellingworth)는 종교 개혁 시대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개정판(the Revised English Version)까지를 다룬다. 엘링워스는 이 기간을 다시 네 시기로(1517-1600, 1600-1700, 1700-1804, 1804-1885) 나누는데, 인상적인 것은 엘링워스가 1517-1600년까지와 관련하여, 성서 번역에 영향을 미친 다섯 가지 요소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문화적 요소로, 이 기간 중에 헬라어(히브리어도 약간)와 헬라 문학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문학, 특히 시의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서 번역은 힘을 얻었다. 두 번째는 언어 요소로, 이탈리아에서 번역 이론이 어느 정도 숙성되기에 이른 점이다. 그들은 단테(1265-1321), 페트라르카(1304-1374), 보카치오(1313-1375)를 고전 문학들과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헬라어와 라틴어의 우위를 상정하는 언어의 위계가 흔들리게 되었고, 모든 언어가 동등하다는 생각이 주장되기도 했는데, 이는 번역의 촉진에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요소로, 정치적 상황과 장소에 따라 성서 번역 및 번역된 성서의 출판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비교적 성서 번역과 출판에 안전한 곳이었다. 토착어의 사용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1539년 프랑스는 라틴어 대신 불어를 공식어로 선포했다. 1541년 칼빈은 자신의 라틴어 판 『기독교 강요』를 불어로 번역 출판할 때, 그 번역을 “우리 프랑스 민족”에게 바친다는 헌정사를 썼다. 네 번째는 종교적 요소로, 종교 개혁 이전에 서유럽에서는 이미 성서의 일부가 토착어로 번역되어 인쇄되었다. 그러나 루터의 번역이 성서 원어에 기초한 1차 번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스칸디나비아와 네덜란드 등지에까지 광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가톨릭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모든 토착어 성서 생산을 금지했고,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 번역 성경에 상응하는 가톨릭 번역 성경을 내놓았다. 이 시기에 논쟁의 대상은 번역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특정 교의와 연관된 부분의 번역(교회 혹은 회중, 사제 혹은 장로의 번역 문제), 혹은 번역에 덧붙여진 삽화의 적절성 문제였다(예,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를 교황과 동일시하는 내용). 다섯 번째는 기술적 요소로, 인쇄술의 발달이 독일, 파리, 리용, 바젤, 안트베르트 등 다른 지역으로 영향력이 파급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편집자인 노스가 그의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번역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여러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17세기와 관련해서는 1611년에 KJV 혹은 AV가 출간된 일이 언급될 만하다. 17세기는 성서 번역 분야에서 보자면, 급속한 팽창의 시기라기보다는 안정화(consolidation)의 시기였다. 16세기에는 13개 언어권에서 성경 전체를 번역한 인쇄본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그 목록에 단지 7개 언어만 추가되었다. 이는 전체 성경을 번역한 작업과 관련한 것이고, 신약 성경이나 성경의 특정 부분에 대한 번역은 또 다른 문제이며 개정 작업도 굉장히 활발했다.

18세기는 새로운 성서 번역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라기보다 서유럽에서 교파간의 분리가 영속화되고 심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가톨릭은 여러 권으로 된 연구용 성서들(Study Bibles)을 만들어냈고, 루터와 개혁 전통에 있는 개신교는 성서를 자신들의 가르침의 기초로 삼았다. 또한 18세기에 특기할 점은 몇몇 아시아 언어들로 성서 번역과 출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세기에 들어 이전에 인쇄된 것들 전체보다 2배가 많은 성경 전체에 대한 번역본들이 (61개 언어) 처음으로 빛을 보았다. 이 괄목할 만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영국성서공회(BFBS: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의 설립과 더불어 1804년에 시작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운동이다. 이 운동은 18세기 후반의 복

음주의 부흥 운동의 늦은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선교 운동과 역사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12개의 유럽 언어들, 31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어들, 11개의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의 언어들, 3개의 아메리카 언어들, 그리고 3개의 지역간(interregional) 언어들로 된 성서 전체의 번역들이 출판되었다.

9개의 성서 번역은 토착민들에 의해서 번역되었고, 8개의 번역본들은 외부인의 도움을 얻은 토착민들에 의해, 38개의 번역은 외부인 중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 4개의 번역본들은 토착민의 도움을 얻어 외부인들이 번역하였다. 유럽어로의 번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 시기 번역들에서 선교사들이 번역자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반영한다. 하나는 알려진 선교사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토착민들보다 서구 성서공회들에게 번역들을 더 수용적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의 번역은 대상 언어로 자연스럽게 옮기는 것보다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더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번역에 있어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경쟁이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된다. 하나는, 이 시기 선교 운동은 대부분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과 관련되고, 두 번째는 가톨릭 선교가 활발한 곳에서 예전적이고 교리적인 자료들의 제공이 성서 번역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번역들이 주로 KJV와 같은 외국 언어로 된 번역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1877년 한 권으로 된 최초의 러시아어 성경의 출판도 유럽의 성서 번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시기에 새로운 번역들이 많이 나온 것 외에도, 상당한 수의 주요 개정들이 이루어졌다.

제1부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에서 모졸라(Aloo Mojola)와 소실로(Daud Soesilo) 두 학자는 유럽과 북미로부터의 개신교 및 가톨릭 선교사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선교사 시대(19세기에서 20세기 중/후반까지)의 성서 번역에 대해서 소개한다. 모졸라는 아프리카의 경험(Bible Translation in Africa)을, 소실로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상황(Bible Translation in Asia-Pacific and the Americas)을 요약한다. 구체적인 번역본들에 대한 논의는 번역사의 중요한 일지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두 장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저자가 “번역의 문제점들”로 인지되는 것들의 예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졸라는 번역이 지닌 선교적이고(missionary) 성육신적인(incarnational) 성격의 특징에 대해 숙고하면서, 아프리카에서의 성서 번역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한다. 경계를 넘어 말씀(The Word)을 다른 문화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선교적인 명령에 관계된 것이고, 그 복음을 토착적이고 그 지방에

고유한 것으로 변형(transformation)시키는 것은 성육신적인 과제에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즐라는 성서의 메시지와 그 번역은 항상 수용자의 문화 형태를 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히브리-유대적인 문화에서는 그것이 그 문화의 형태를 취하며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표현되었고,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헬레니즘의 형태를 취하면서 헬라어로 표현되었으며, 로마-중세 유럽 문화에서는 로마 문화의 형태를 취하면서 라틴어로 표현되었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다른 대륙으로 건너갈 때, 그것은 토착어를 사용해 그 지역의 문화에 침투하고 그 문화를 변화시켰음을 사네(Lamin Sanneh)와 다른 사람들이 살펴본 바 있다.

모즐라는, 유럽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 및 성서 번역은 서구 문화를 대상 문화에 이식시키고 수출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이는 기독교 메시지의 성육신적인 성격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성서의 메시지와 그 번역이 보여주었던 선교적이고 성육신적인 방향성에 위배되는 유럽 선교사들의 선교와 성서 번역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모즐라는 또한 성서에 나오는 신명(神名)들을 아프리카의 신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면서, 번역에 있어서 수용자들의 문화에 적응시키는 방법이 원래 의미에 변화를 가져다 줄 위험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언급한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 외에도 아프리카에서는 2천 개가 넘는 언어 중 아직 158개 언어로만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있고, 성경의 일부가 번역된 언어를 합치더라도 아직 673개 언어만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현실이 큰 도전으로 남아 있음도 언급된다. 잘 훈련되고 능력을 갖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자원의 부족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신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도 성서 원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매우 적으며, 상대적으로 손쉬운 주제를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어서, 성서의 원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다양한 언어들 대다수가 여전히 구전 형태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서법(orthography)과 표기법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소실로도 모즐라와 비슷하게,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의 번역들의 실태를 개관한 후에, 이 지역에서의 성서 번역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논한다. 아프리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명(神名)들의 번역이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도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덧붙여 성서에 등장하는 은유와 직유들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예를 들면, 룰(Ruyil)이 말라이어로 번역한 마태복음에서 룰은 ‘무화과나무’를 ‘바

나나나무’로 번역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낯선 무화과나무를 그들에게 친숙하게 만들고자 했다.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에서는 ‘눈처럼 흰’이라는 표현이 ‘흰 돌처럼 흰’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굳은 마음(hard heart)’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는 완고한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서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경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굳은 마음’을 ‘막힌 귀를 가진(ears have no holes)’이라고 번역한 사례를 언급한다. 소실로도 모졸라와 비슷하게 성육신을 언급하며, 성서 번역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육신의 재연(re-enactment)이 되어야 한다는 언급으로 글을 맺고 있다.

4. 〈제2부, 인식론과 이론(Epistemology and Theory)〉

제1부가 번역과 번역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제2부와 제3부는 ‘과정으로서의 성서 번역(Bible translation as a process)’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번역 이론은 번역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아니라 성서 텍스트의 문화와 번역가들 자신의 문화적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메우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서론에서 아르두이니(Stefano Arduini)는 먼저 실증적(realist) 인식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진술들을 이론의 토대로 삼는 이전의 인식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기술이 불가능하며, 모든 진술은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s)’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베르망(Antoine Berman)은 서구 번역의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를 통해 베르망은 타문화와의 관계를 완전히 자문화 중심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꼬집는다. 번역과 관련한 이러한 입장은, 번역이 기본적으로 형태에 상관없이 의미의 수용으로 이해되던 키케로와 제롬에게서 비롯되었다. 번역의 목적이 의미의 파악이라면, 우리는 텍스트의 몸체, 즉 본문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아야 한다. 의미에 대한 충실성은 문자에 대한 충실성일 수 없기 때문이다.

번역 연구의 과학주의에 대한 대안은 메쇼닉(Henri Meschonnic)에 의해 제시되는데, 그는 ‘번역학’ 대신에 ‘번역의 시학(poetics of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메쇼닉은 이를 통해 내용 대 형식, 원천언어(source language) 대 대상언어(target language)의 이분법을 극복해 보고자 했다. 시학은

강화에 있어서 연속체(continuum)를 숙고한다. 단어들이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단어들이 행하는 것 혹은 언어의 행위 자체를 숙고한다. 메쇼닉은 번역이 보여주는 것과 숨기는 것 사이의 선택에 직면할 때, 자연적인 효과를 위해 대체로 숨기는 선택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이 과정은 메쇼닉이 “병합(annexation)”이라고 부르는 과정, 즉 원문 텍스트의 수용 문화로의 통합으로 이끈다. 이 과정과 관련하여 번역 연구에 있어서 관심이 의미의 소통에서 다른 요소들, 예를 들자면 ‘누구를 위한 번역인가?’ ‘번역자가 누구인가?’ ‘번역이 왜 진행되고 있는가?’ 등의 요소들로 옮겨가게 되었다. 언어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고, 번역이 기호학과 관련되는 한, 번역은 다양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됨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번역은 단순히 변경되지 않는 의미의 전달 이상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천 텍스트의 기능들을 대상 맥락에서 재건하는 중립적인 언어학자가 아니라 문화간 접촉에서 중대한 역할을 떠맡게 됨이 논의된다.

앤소니 뎀(Anthony Pym)은 “성서 번역의 역사적 인식론에 관하여(On the Historical Epistemologies of Bible Translating)”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성서 번역을 특징짓는 중요한 인식론들을 다루는데, 하나는 재현적(the representational) 인식론이고, 다른 하나는 비-재현적(non-representational) 인식론이다. 비재현적 인식론은 원본 텍스트 자체보다는 번역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 인식론은 의미가 전달(transfer)되는 자리는 텍스트가 아니라 번역자라고 본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신학자 르와지(Alfred Loisy)는 기독교 복음은 그 다양한 해석사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하르낙의 주장에 반대하여, 역사적 전통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단순히 폐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번역은 원천 자료의 재현이 아니라 ‘역사적인 번역들의 종합으로서의 본문’에 기초해서 그 해석을 확장해 나가는 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현적 인식론에서는 원천 자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모방하고자 한다. 이 인식론에서는 원천 본문(source text)에서 드러났고 번역에서 재현될 메시지가 중요하다. 신뢰는 최초의 영감에만 부여되고, 언어로 재현되는 순간 그것은 불완전하게 되어 끊임없는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어거스틴은 *De Catechizandis Rudibus* 2.3.1-6에서 비슷한 생각을 표현했다: “개념은 빛 같이 분출하고,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느리고 지연된다. 그리고 개념은 단지 기억 속에 각인된 몇몇 흔적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소통을 포기하지 않는다. 소통되는 것은 언어에 선행하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통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흔적의 기억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말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해는

궁극적으로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올 것이고, 언어적 소통은 기껏해야 보조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플라톤적 재현과 영감의 종교를 조화시키려고 시도한 사상가인 어거스틴은 재현적 인식론과 비재현적 인식론 모두의 예로 거론될 수 있다.

이 두 인식론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중세로 소급되는 언어의 위계질서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중세 시대에는 메시지가 본문 자체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언어에서 구현된다고 보았다. 그것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신성한 언어로 간주되는 이유이다. 브루니(Leonardo Bruni)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언어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중세기 언어의 계층 구조는 다른 번역들의 제도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더 관련이 깊은, 보다 외적인 인식론을 위한 이념적 틀을 제공했다. 언어의 계층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높이 평가되는 역본들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교회적인 기관들에 의해 사용될 법한 것들이었으며, 그때 그것들은 “공인(authorization)”을 받게 된다. 공인은 동등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공인은 전체 본문에 관한 것이지 파편이나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핍이 보기에 나이다(Nida)와 구트(Gutt)의 작품은 재현적 인식론의 예를 제공한다. 나이다에게 있어서 형식적인 동등성과 내용적인 동등성의 개념들은 의미를 재현하는 두 가지 방식을 구성한다.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둔 ‘내용 동등성’을 추구할 경우, 언어 구조보다 대상 문화의 세부사항들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이다는 내용 동등성을 선호했는데, 그것은 메시지가 가능한 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현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대 복음주의 이념과 합치한다. 모든 문화와 언어 사이에는 계층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 모든 문화의 모든 특징을 목록화 하고 영역별로 나누는 “객관적 과학”의 지향은 그 자체로 회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작업 자체가 목록화 하고 영역별로 나누는 한 개인의 관심사와 사회적 위치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하나의 번역 작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이다의 이론이 도전에 부딪치게 된다. 구트에게 있어서 화자의 의도는 효과적인 소통의 과정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나이다가 번역될 대상 언어의 문화적 상황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해, 구트는 성서 원어의 문화적 상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패트모어(Stephen Pattemore)는 “나이다 이론의 역할 분석: 세계성서공회에서 번역 이론의 관련성(Framing Nida: the Relevance of Translation Theory in the United Bible Societies)”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UBS의 번역 사업에 있어서 번역 이론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 후에 이 관점에서 나이다와 구트의 이론

을 검토한다. 패트모어는 나이다의 선구자적 업적과 그 후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후에, 나이다에 대한 내외적인 비평들을 다룬다. 나이다의 토대를 놓는 작업은 관찰로부터 일반화시키는 것의 의미에서 이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언어학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특히 어휘의 의미론과 변형 문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암호화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이다와 타버(Taber)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암호화 모델을 가정하는데, 이 이론의 결함이 나이다가 비판받는 대목이다. 원천 언어를 핵심 문장(kernel sentences)으로 분석하여, 대상 언어로 바꾸고, 대상 언어의 핵심(kernels)을 적절하게 복잡한 수준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은 변형 문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다의 이론은 *FOLTA(From One Language to Another, 1986)*에서 더 정교화된다. *TAPOT(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1969)*에서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이라 했던 것을 *FOLTA*에서는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이라 바꾸어 부른다. 나이다는 이 둘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지만, 정의에서 사용된 동사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나이다는 ‘내용 동등성’을 정의할 때 사용했던 ‘respond’라는 동사 대신에 ‘기능 동등성’을 정의할 때는 ‘comprehend’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전자는 측정 불가능한 것이나, 후자는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차이는 언어를 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사회 과학적 이해로의 전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 기호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의미는 단지 단어들이나 문법적 구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TAPOT*에서처럼, *FOLTA*에서 의미는 여전히 텍스트 자체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의미에 도달 가능하지만, 여기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이제 단어들이 아니라 기호들(signs)이다. 새로운 정보, 지적 활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들, 새로운 시스템들의 결과, 정신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개인들 상호간 혹은 집단들 상호간에 어느 정도 부분적 동형(isomorphism)이 존재해야 한다.

*FOLTA*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은 수사적 기능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다. 문법적 규칙보다 상위 레벨에서 의미를 창출하도록 하는 선택과 배치의 과정으로서의 수사적 기능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TASOT(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1964)* 및 *TAPOT*와 비교해 볼 때, *FOLTA*는 본문의 더 큰 차원들로, 그리고 본문 밖의 세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본문과 컨텍스트의 관계에 대해 씩씩하면서도 아직 그 무게 중심을 본문에 두고 있다. 따라서 *FOLTA*는 성서공회 운동 내에서 번역 이론의 패러다임 변화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나이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세 종류로 소개된다. 먼저는 성서학 분야에서

은 것으로 니콜스(Nichols)의 비판을 들 수 있다. 그는 나이다가 번역 성공의 척도를 수용자의 ‘반응’에 기준을 두는 것, 형식을 의미보다 가치 절하하여, 그 결과 언어적 일치보다는 상황적 일치에 우선함으로써 주석적 잠재성을 소실한 점 등을 비판한다. 두 번째는 문학 비평에서 나온 것으로, 프리케트(Prickett)는 형식을 희생시킴으로써 의미를 번역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실에 대해 나이다를 비판한다. 본문 뒤의 세계, 진정으로 접근 불가능한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함으로써, 나이다의 이론은 의미의 망(web of meaning)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것, 즉 텍스트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베누티(Venuti)의 것으로, 나이다의 ‘친숙하게 만들기(domesticating)’에 반대해 ‘낯설게 하기(foreignizing)’를 제안한다. 정치적, 민족적, 지정학적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인종주의, 제국주의, 문화적 도취주의, 특정 인종 중심주의(특히 유럽 인종)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베누티는 ‘낯설게 하기’ 방법을 주장했다. 베누티의 비판은 주로 번역 이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주된 관심이 제국적 중심 언어인 ‘영어로의’ 번역이라는 점은 그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다. UBS 내에서도 TTWs(Triennial Translation Workshops)을 거치면서 지도력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 반성적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이어 패트모어는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이 번역 이론에 있어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이론으로 논의되어 온 방식을 검토한다. 패트모어는 특히 구트의 빅토리아 폭포 강연(Victoria Falls lectures)을 위주로 논의를 검토한다. 관련성 이론이 나이다의 이론과 다른 점은, 번역의 동등성을 찾기 위한 지점으로서의 심층구조에 대한 촘스키의 탐구를 포기했고, 어휘의 의미론(lexical semantics)에 대한 강조로부터 컨텍스트에 매우 민감한 화용론(pragmatics)에 대한 강조로 그 강조점이 변했다는 것이다. 관련성 이론이 지적하고 있는 나이다의 이론이 지닌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의사소통의 암호화 모델(the code model of communication)의 부적절성과 번역가능성(translability)에 대한 가설의 부적절성이다. 구트가 보기에 인간의 의사소통은 암호화와 해독(coding-decoding)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한 암호화와 해독 과정의 결과물은 광범한 추론의 사용에 기초한 해석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관련성 이론은 또한 번역가능성 대신에 ‘소통가능성의 조건(condition of communicability)’을 제시한다. “... 의도된 해석은 어떤 맥락에서든 다 복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이 충족되는 맥락에서만 가능하다. 그 진술이 의사소통자(communicator)가 의도한 상황에서 처리될 때 성공적인 소통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들의 배경에 대한 지식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메시지가 모든 청중에게 소통될 수 있다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트의 제안이 지닌 급진성은 어떤 번역 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을 가져다주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간언어적 해석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점이다. “번역은 수용자 언어의 청중에게 적절하게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측면에서만 원본을 닮아야 한다. 또한 번역은 이해하기 불필요할 정도로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분명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관련성 이론은 ‘비-문자적 언어’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관련성 이론은 문자성이 법칙이라기보다는 예외라고 가정한다. 비문자적 의미의 풍부함과 그것의 공유된 인지적 환경에 대한 강한 의존은, ‘번역자가 어떻게 이 의미를 다른 문화에 속한 청중에게 소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새로운 명료성을 가지고 제기하게 만들었다.

구트의 강연에서 가장 독창성 있는 제안은, 번역을 다른 사람의 말(speech)을 보도하는(reporting) 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직접 인용 혹은 간접 인용을 택할 자유가 보고자에게 존재하는데, 번역은 어떤 의미에서 상호언어의 말(speech)의 인용이다. 그러나 상호언어의 소통이 갖는 한계 때문에, 진정한 직접 인용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번역 행위는 해석과 관련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패트모어는 구트의 이론에 대한 SIL과 UBS의 반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패트모어는 SIL과 UBS로부터 제기된 관련성 이론에 대한 거부 반응은 관련성 이론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주장에 대한 혼동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구트의 관련성 이론은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번역이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추론의 노력을 유발하는 것과 왜곡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면서, 원래의 인지적 소통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번역해야 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마치 문자주의적 번역으로의 회귀로 오해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패트모어는 이 논문에서 UBS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나이다의 번역 이론이 현재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제는 중요한 번역 이론의 하나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5. <제3부, 성서 번역의 방법론(Methodology of Bible Translation)>

제3부는 방법론, 보다 정확히 말해 성서 번역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번역 기술들에 초점을 맞춘다. 드 프리즈(de Vries)는 원본과 번역된 본문 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 즉 “(번역의) 충실성” 문제에 주목한다. 시슬링(Sysling)은 “고대 성서 번역들에서 번역 기술들(Translation Techniques in the Ancient Bible Translations)”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초기 역본들(칠십인역과 타르굼들)에서 발견되는 번역 기술들을 분석한다. 엘링워스는 “현대 성서 번역에서 번역 기술들(Translation Techniques in Modern Bible Translations)”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종교 개혁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번역 기술들을 조망한다.

이 작업은 번역본들 자체로부터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에 속하는데, 시슬링의 논의는 제1부에 소개된 벌크의 논문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시슬링은 칠십인역과 아람어 타르굼들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번역 기술들을 구체적인 번역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때로는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대체 및 첨가, 문체적 축약과 생략 등), 때로는 신학적인 이유에서 다양한 방법론들이(신인동형론의 제거, 미드라쉬식 주석 등) 도입되는 사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타르굼들에서도 칠십인역의 경우에서와 비슷한 번역 방법들이 발견된다. 신인동형론적 표현의 회피, 중복(=이중) 번역, 명명되지 않은 사람의 신분을 밝히기, 히브리어로 읽히지만, 아람어로 번역하지 않는 경우(예,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이야기의 경우) 등 의미를 명료하게 하고, 또 신학적 동인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엘링워스의 현대의 번역 기술들에 대한 논문은 실제적인 번역 기술들보다는 문자적 번역과 내용 위주의 번역 사이에 존재하는 이분법적 이론들에 대한 고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번역 이론 부분의 논의와 내용적으로 상당히 겹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드 프리즈가 서론에서 밝혔듯이 성서 번역에 사용된 여러 번역 기술들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목표는 원본 텍스트의 의미를 대상 문화의 맥락에서 대상 언어로 ‘현실화(actualization)’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6. 〈제4부, 성서 번역: 오늘날의 현장(Bible Translation: The Field Today)〉

제4부는 성서 번역을 오늘날의 맥락 속으로 끌어들이으로써 논의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놓는다. 조그보(Lynell Zogbo)는 서론에서 “오늘날의 현장”에

대한 논의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선교사 시대의 번역과 선교사 시대 이후의 번역 사이에 발생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술하면서, 그녀는 그 특징을 “능력 부여(empowerment)”라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 핼이 암시했듯이, 오늘날 성서 번역은 문화적 행위에 관여함을 뜻하며, 성서 번역은 이데올로기적 활동에 속하는데,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성서 번역이 서구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오용되었던 반면, 선교사 후기에 대상 언어에 속한 성서공회의 역할과 토착민의 성서 번역에 있어서의 역할 증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송과 켈모뉴는 아프리카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산체즈-케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이 점을 분명하게 해 준다. 이들은 선교사 시대의 번역은 식민지 정책과 맞물려 대상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서구) 문화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번역은 이제 더 이상 선교사 후기 시대에 적절하지 않음을 여러모로 논의한다. 그러면서 현지 언어에 능통한 현지인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성서의 번역에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실상을 소개한다. 현지의 성서공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넘겨받고 있으며, 인적 자원 면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놀라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7. 평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성서 번역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개관하게 해 주는 매우 유의한 정보를 담고 있다. 칠십인역을 필두로 한 번역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번역들 자체에 대한 방대한 정보, 번역에 관련된 인식론과 번역 이론의 문제에 대한 정교한 논의, 특히 비서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 작업의 성과와 변화 추세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등, 짧은 시간에 성서 번역에 관련된 제 문제를 일별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만족을 줄 만한 책이라 하겠다.

이 책의 특기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논문들이 번역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단순히 전환시키는 작업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이다. 편집자인 노스가 서론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번역의 사회 문화적, 이념적 성격이었고, 대부분의 논문들이 명시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그러한 측면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 특히, 오늘날 번역 현장을 다루고 있는 제4부에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성서 번역 현황을 논의하면서 선교사 시대의 번역과 선교사 후기 시대의 번역을 대조한 부분은, 그동안 서구 중심으로 자문화 중심적 편견을 가지고 은연중에 제국적 문

화를 제3세계에 이식시키는 데에 선교사들에 의한 성서 번역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반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성서 번역의 현황을 논하는 제4부에 아시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음은 아쉬운 점이다. 번역 자체를 다루는 제1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역본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한 가지 아쉬움이 발견된다. 아시아 지역의 성서 번역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가졌던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 많은 비중이 주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논의가 빈약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서구 중심적인 번역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비서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험을 가진 아시아 지역으로 국한되고 있음은 서구인에 의한 성서 번역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지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듯하다. 편집자인 노스는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듯,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성서 번역사가 동양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스스로 자인한다. 노스는 이 책도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주관적 기술일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 서양인에 의한 문화의 다중심성에 대한 논의의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할 때, 동양인에 의한 성서 번역사가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지적한 아쉬움을 제외하면, 이 책은 번역본과 번역이론의 다양한 측면을 다른 학문 분야와의 관련 하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번역도 학문 상호간 연구의 맥락에서 탐구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서학의 경우, 문학, 사회학, 언어학, 문화 연구, 기호학 등의 여타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본문의 해석이 더욱 풍성해지고 비판적인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가 번역의 이론과 실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며 반길 만한 일이라 하겠다. 나이다가 제공한 번역 이론이 번역의 실제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지만 문학 비평, 사회학적 비평 등과의 대화를 통해 나이다의 이론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그 이론의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아,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서 의미의 자리가 본문 뒤의 세계가 아닌 본문 앞의 세계로 옮겨오고 있는 사정과, 번역에 있어서 대상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그 비중의 크기에 대한 강조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번역이 시작된 초기부터 내용 동등성과 형식 동등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렸었지만,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원천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번역 자체가 하나의 해석이며, 해석으로서의 번역에 있어서 주체가 서구인이 아닌 토착민이어야 한다는 쪽으로의 논지는, 앞으로 성서 번역에 있어서 대상 문화와 대상 언어, 그리고 토착민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번역을 통해 소통되어야 할 의미 혹은 메시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관련성 이론이 커뮤니케이션의 암호화와 해독 과정에 기초한 나이다의 이론을 비판하며, 번역 가능성이 아니라 소통 가능성을 물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번역 이론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시하는 것이다. ‘번역학’이 아닌 ‘번역의 시학’으로의 이행에 대한 요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제 번역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듯하다. 이는 앞으로의 성서 번역은 단순히 언어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본문 해석 능력을 갖춘 번역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번역 작업이 보다 까다롭고 중대한 신학적 작업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하겠다.

<주요어> (Keywords)

번역의 시학, 관련성 이론, 나이다, 내용 동등성, 번역 기술들
poetics of translation, relevance theory, Nida, dynamic equivalence, techniques of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0년 4월 05일; 심사 일자: 2010년 4월 15일; 게재 확정 일자: 2010년 4월 15일)

<Abstract>

Book Review-*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Philip A. Noss, ed.,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2007)

Dr. Doo-Hee Le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book gives u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including not only translations themselves but also translation theory, translation techniques, and the translation field today. It is composed of five sections, Philip A. Noss's introductory chapter and four sections. Noss, as general editor, gives an overview of all the articles included in this volume, highlighting characteristics found throughout the articles. Four sections have its own editors and include several articles that deal with themes specific to each section. First section surveys translation themselves from the Septuagint to the vernaculars. Each contributor examines processes and the present status of translating. Second section turns our attention from translations themselves to epistemology and theory. There has been two opposing attitudes toward translation. One supports the literal translation,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original text. The other argues that the transfer of meaning (or message) is more important, trying to adapt the message of the original text to contexts of target languages and cultures. In this section, Stephen Pattmore examines the changing atmosphere that attempts to talk with other disciplines like semiotics, literary theories, and sociologies, etc. Even though the influence of Eugene Nida's frame is in active, other voices both inside and outside UBS emerge. Pattmore traces the trajectory of changing theories of translation from Eugene Nida's *TASOT*, *TAPOT*, *FOLTA* to Relevance theory. The third section discusses specific techniques of translation employed by different translators at different period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mmon goal of employing various techniques, regardless of differences in details, was to 'actualize'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The fourth and last section portrays the status of translation in non-western countries like Africa and America.

It is commendable that this book reflects the attempts of interdisciplinary

dialogues of translation, both in practice and theory, with other disciplines that provide many insights and materials to consider. It is also remarkable that this book shows the understanding of translation as interpretation or ‘doing theology’. This understanding makes sure that translation is not simply to transmit linguistically a text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Rather, translation involves diverse interests from translators and supporting institutions. Despite many merits of this book, I regret that this book does not discuss more about the status of Bible translation in Asia. It is too much focused on the Western part, whatever the reason may be. Still, I believe that this book is recommendable for the readers who want to survey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at a comprehensive level, including practices and theories of translation both ancient and modern.